

재번역을 통한 번역가의 상징자본 추구 전략*

임진(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재번역(retranslation)이란 특정 언어로 이미 번역이 이루어져 있는 작품을 다시 번역하는 행위, 또는 다시 번역된 결과물 텍스트를 의미한다(Gürçağlar, 2019, p. 484). 이미 번역된 작품에 대한 재번역 결정과 실행에 관여하는 주체와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재번역은 초판 번역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설명되곤 한다(Massardier-Kenney, 2015, p. 74). 재번역에 참여한 번역가들은 초판에 존재하는 번역 품질 문제를 개선하거나, 재번역이 출간되는 시점의 언어 사용 규범이나 독자들의 요구를 좀 더 잘 수용하기 위해 재번역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힌다(김순미, 2014, p. 46). 기타 재번역 생산에 관여하는 주체들 역시 초판 번역과 재번역을 차별화하며 재번역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곤 한다.

그러나 재번역이 기존 번역보다 우수하다는 소위 “결여의 담화”(Discourse of Lack)(Massardier-Kenney, 2015, p. 73)가 늘 유효하지는 않다는 것이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 본고는 2024년 7월 3일 한국외대 통역번역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 및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임진, 2023) 데이터 일부를 확장, 보강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고에 대해 소중한 영감과 식견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지정토론자 동국대 마승혜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발전 단계, 원천문화와 목표 문화의 관계, 역사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맥락, 출판사의 요구, 독자의 기대, 기타 편집 요소의 변화, 번역가의 요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유한내, 2017, pp. 1-2). 번역과 마찬가지로 재번역 역시 사회적 현상이므로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와 개별 주체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고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번역의 대한 논의는 단순히 초판과 재번역 텍스트의 개선점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신의 번역 실천을 차별화함으로써 해당 실천의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능동적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번역사회학적 관점으로 재번역을 조망한 일부 실증적 사례연구(Charlston, 2012, 2018; Song, 2012)에서는 재번역에 참여한 번역주체들이 재번역의 필요성, 재번역에 사용된 번역 전략의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적 지향을 통해 번역가로서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고 업계에서의 평판과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본고는 이들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번역주체를 중심에 두고 재번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사례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비문학 실용서의 재번역 사례를 텍스트와 곁텍스트뿐만 아니라 해당 번역가와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1989년 미국에서 출간된 전설적 펀드매니저 Peter Lynch의 자전적 에세이 『One up on Wall Street』(Lynch & Rothchild, 1989, 2000)의 한국어 번역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Lynch & Rothchild, 1991, 1995, 2009, 2017, 2021)으로, 2009년 투자전문 번역가 이건의 재번역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분석을 위해 첫째 원문 및 초판, 재번역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번역가의 텍스트 번역 전략을 조사하고, 둘째 곁텍스트를 포함한 문헌조사를 통해 해당 재번역이 이루어진 출발어와 도착어의 사회문화적 환경, 번역가가 진술하는 재번역 과정과 전략, 기타 주체가 기술하는 해당 번역가의 명성과 입지를 탐색한 다음, 셋째 해당 번역가와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를 검증, 보완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재번역과 상징자본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2.1절 및 2.2절), 재번역을 통해 상징자본을 추구하는 번역가의 실천을 다룬 선행연구와 그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2.3절).

2.1 재번역

재번역은 단일 원문 텍스트에 대해 복수의 번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생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Koskinen과 Paloposki(2010, p. 294)는 재번역을 초판 번역과 시간차를 두고 생산되는 번역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되는 번역, 중역, 번안, 개정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번역이라 하면 협의의 재번역, 즉 초판 번역이 시간차를 두고 다시 번역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본고 역시 협의의 재번역 사례를 다룬다.

재번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접근은 초판 번역이 불완전하며 불충분하다는 Berman(2009)의 논의에서 비롯된 재번역 가설(retranslation hypothesis)에 기반하고 있다. 초판 번역은 수용자, 번역가에게 모두 낯설고 외래적이기 때문에 자국화 경향을 띄므로 결함이 존재하고, 목표문화에 원작이 소개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원문의 외래적 요소를 살려 재번역되어 결함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반박되거나 지지되어, 언제나 유효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Koskinen & Paloposki, 2010, p. 297). 초판 번역이 언제나 자국화되어 있고 재번역이 외래적이지도 않으며, 재번역이 늘 초판 번역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대마다 변화하는 언어적, 문화적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 등으로 재번역의 결정과 텍스트적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번역 현상을 고찰하려면 초판과 재번역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종합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유한내, 2017, p. 104).

번역을 사회적 행위로 보는 시각에서 재번역은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번역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원문이라는 상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번역이 결정, 해석, 수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여기

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주체성을 노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실증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재번역 연구의 대다수는 재번역 텍스트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번역가(박미정, 2016) 또는 동일 번역가(김자경, 2022; 이상빈, 2018, 2020; 조원석 등, 2022)의 번역 선택의 차이와 그 요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면접조사 등을 통해 재번역의 사회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소수(최은경과 조성은, 2022)에 불과하다. 또한 재번역 연구는 대부분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Gürçağlar, 2019, p. 484; Koskinen & Paloposki, 2010, p. 295). 상기 언급된 연구들 또한 대부분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Kim(2018) 등 소수의 연구만이 비문학을 다루고 있다. 문학 장르에서 재번역은 원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지만 과학, 기술 등 비문학 텍스트를 다시 번역하여 출간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ürçağlar, 2019, p. 485). 최근에는 영상번역(김세미, 2022)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비문학 번역서 역시 재번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왜 재번역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 공백과 재번역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고는 비문학 실용서의 재번역 사례를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되, 번역주체가 재번역을 통해 번역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2.2 번역가의 상징자본

상징자본이란 프랑스 번역사회학자 Bourdieu가 특정 사회공간에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역학 관계를 설명한 장 이론(field theory)(Bourdieu & Wacquant, 1992)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으로, 실천이 벌어지는 사회적 공간인 장에서 획득하는 명성, 인정, 특권, 지위와 같은 무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Bourdieu에 따르면 장은 전문직업 실천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이며, 실천에 종사하는 주체들은 장 내에서 거래되는 자본을 획득하기 위하여 분투한다(Bourdieu & Wacquant, 1992, pp. 97-98). 장 내 모든 주체는 각자 다른 가정 환경, 성장 과정, 교육 환경, 경력, 지식을 통하여 축적한 일종의 기질 체계인 아비투스(habitus)를 바탕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인 전략적 지향에 따

라 장 내에서 벌어지는 자본 획득을 위한 게임에 참여한다(Bourdieu, 1977, p. 72). 장에서 거래되는 자본(capital)에는 금전과 같은 유형자본 뿐만 아니라 지식, 평판, 인맥,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본이 모두 포함되며,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네 가지 형태를 띤다. 경제자본은 금전을 뜻한다. 문화자본은 개인이 형성한 취향, 지식, 기술을 포괄하며 저술이나 작품 등 대상화된 자본도 포함한다. 사회자본이란 개인적 인맥이나 친분, 또는 제도적 네트워크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상징자본이란 사회적 평판, 명성, 명예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자본은 경제자본에서 파생된다(Bourdieu, 1986, p. 24). 경제자본은 즉시 금전으로 전환되지만 지식, 기술 등 문화자본,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경제자본으로 전환된다(Bourdieu, 1986, p. 16). 그런데 어떠한 자본이든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외부의 인정을 받고 명성을 획득하는 수준에 이르면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으로 전환된다(Bourdieu & Wacquant, 1992, p. 518).

장 이론을 적용하면 출판번역장에서 재번역을 통해 번역가로서 자신의 평판과 명성을 확보하려는 번역가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번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해당하는 문화자본을 보유한 번역가는 출판사와 번역 에이전시와의 관계라는 사회자본을 통해 번역을 수주하고, 번역료라는 경제자본을 획득한다. 번역 결과물은 해당 번역가의 문화자본으로 축적되고, 이는 번역가의 경력이 되므로 다른 작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번역에 참여하는 번역가는 이를 통해 여러 전략적 지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자신의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초판과 다른 번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여러 자본을 동원하여 초판의 번역과 재번역을 차별화하는 담화를 생산, 유통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번역가가 자신의 밀친, 즉 자본을 동원하여 어떠한 전략적 지향을 추구하는지 탐색하려면 해당 번역가, 또는 분석 대상 작품에 대한 원문 및 초판과 재판 번역 텍스트, 결텍스트, 면접조사를 통한 다각적인 탐색과정 및 검증과 보강이 필요하다.

2.3 재번역을 통한 상징자본 추구

번역주체가 재번역을 통해 상징자본을 추구하는 전략을 번역 텍스트 및

결텍스트를 통해 탐색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Song(2012)과 Charlston(2012; 2018)을 꼽을 수 있다.

Charlston(2012; 2018)은 Hegel의 철학서를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번역가들의 텍스트와 결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들이 번역장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번역 전략을 취했다고 밝혔다. Hegel의 철학서를 1910년 번역한 초판 번역가는 독일어로 정신, 영혼을 뜻하는 “Geist”를 “mind, spirit, Spirit”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이를 1994년 재번역한 번역가는 용어 일관성을 중시하여 이를 모두 “spirit”으로 통일하였다. 1910년 초판 번역이 출간될 당시는 철학에서 정신(Spirit)에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던 절대주의(Absolutism)에 대한 부정의 움직임이 나타나던 때였기에 이러한 번역 선택이 나타났다(Charlston, 2018, pp. 185-186). 그러나 재번역가의 경우 당시 학술장에서 추구하는 용어 일관성을 어느 정도 내재한 상태였으며(Charlston, 2018, p. 186), 독자층을 넓히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역자후기에서 암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번역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번역 선택이 이루어지면 결국 번역서가 더 많이 읽히는 데 도움이 되고, 번역가의 지위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Song(2012)은 중국 고전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영어로 재번역한 Gary Gagliardi의 사례를 통해 번역 선택을 넘어 보다 다양한 전략을 통해 번역장에서의 상징자본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ong(2012)에 따르면 손자병법 영역분의 초판(Tzu, 1963)을 번역한 것은 1963년 Samuel B. Griffith이다. Griffith는 해군장교로 전역한 후 옥스퍼드대에서 중국 군의 역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Griffith는 자신의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번역본에 11명의 고대 비평가 인용문을 발굴하여 결텍스트로 삽입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저술가를 직접 추천사 작성자로 섭외하여 추천사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번역서는 백과사전, 학술서로 취급되었다. 한편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소프트웨어 세일즈에 종사하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한 후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된 Gagliardi는 독학으로 중국어를 익히고 Griffith가 번역한 초판을 재번역하여 출간하였다(Tzu, 2003).

Gagliardi는 초심 번역가로서 기존 번역본의 권위에 도전하여 번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텍스트, 곁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였다. 우선 백과사전적 성격을 가진 초판 번역을 대중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단순화하는 번역 전략을 택하였다. 초판에서 나타난 일부 절의 병합이나 단어 사용이 현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중국어 원문 표기와 그에 대한 번역을 병렬텍스트 형태로 제시한 번역과 일반적인 영어 산문 형태의 번역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초판 번역에서 60:40이던 복문과 단문 비중은 재판 번역에서는 25:75로 바뀌었고 절당 단어 수도 초판에서 10.33이던 것이 재판에서는 6.56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독자와의 대인관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칭대명사 “you”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독자 친화적인 텍스트를 생산하였다.

또한 Gagliardi는 자신이 설립한 기업의 웹사이트, 자신의 개인 블로그, 역사서문 등의 다양한 곁텍스트를 통하여 초판 번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신의 번역을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였다.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과 어머니의 군 근무 경험,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이 군사 전략 텍스트 번역에 적합한 아버투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Gagliardi가 획득한 기업가적 성공과 경제자본을 원전과 연결하여 이를 원전의 파생 시리즈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The Art of War Plus The Art of Marketing』(손자병법과 마케팅) 등을 출간하였다. Gagliardi의 번역본과 파생 시리즈는 모두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손자병법의 번역가라는 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상기 제시된 두 연구는 번역가의 텍스트와 곁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번역가의 번역 전략과 이에 대한 진술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 번역가가 전문직업장에서 명성을 쌓아가려는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번역주체 연구는 번역가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에서 면접조사가 제외되어 있기에, 실제 특정 번역 선택이 나타난 경위와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재번역의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상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번역 텍스트와 문헌조사를 통해 재번역의 사회적 배경을 탐구하되, 번역가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그 결과

를 검증 및 보강하는 방식을 택하여 재번역을 통해 번역가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했다.

3.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재번역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3.1절) 연구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3.2절).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89년 미국에서 출간된 『One up on Wall Street』(Lynch & Rothchild, 1989; 2000)이다. 이 책은 1977년 순자산 180만불에 불과하던 Fidelity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Magellan Fund를 1990년까지 140억불 규모로 키운 전설적 펀드매니저 Peter Lynch가 금융 전문 칼럼리스트 John Rothchild와 공저한 자전적 에세이로 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Peter Lynch, 2024). 2000년 밀레니엄판 서문이 출간된 개정판이 출간되었으며, 최초 출간 35주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다.

표 1

연구대상 번역서 판본 정보

구분	출간연도	판본 정보	출판사
ST1	Lynch & Rothchild(1989)	초판	Simon and Schuster
ST2	Lynch & Rothchild(2000)	ST1 원문+밀레니엄판 서문 추가	Simon and Schuster
TT1	Lynch & Rothchild(1991)	ST1의 번역. 한국신용평가 평가부 역	한국신용평가
TT2	Lynch & Rothchild(1995)	ST1의 번역. 한국신용평가 평가부 역	한국신용평가
TT3	Lynch & Rothchild(2009)	TT2의 재번역. 이건 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TT4	Lynch & Rothchild(2017)	TT3의 개정판. 이건 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TT5	Lynch & Rothchild((2021)	TT4의 개정판. 이건 역, 홍진채 감수	국일증권경제연구소

한국에서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Lynch & Rothchild, 1991; 1995;

2009; 2017; 2021)이라는 제목으로 총 5개의 판본이 출시되어 있다. 자세한 판본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TT1와 TT2는 번역가명이 한국신용평가 평가부로 표기되어 있으며, 두 번역본은 일부 오자 수정과 용어 설명의 위치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동일한 번역으로 확인되었다. TT3은 최초 번역본 출간 20년만인 2009년 출간된 재번역으로, 번역가가 변경된 유일한 재번역이다. 펀드매니저 출신 투자 전문번역가 이진이 번역했다. TT4는 TT3의 개정판이며, TT5는 TT4를 전문투자자가 감수한 최신판이다.

재번역 중 TT3은 이진의 초기작 중 하나로, 그가 전업 출판번역가가 된 후 입지를 공고히 하기 전에 번역한 작품이다. 번역주체의 관점에서 재번역을 활용한 번역가의 상징자본 획득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고의 연구 목적 상, 번역가가 변경된 재번역인 TT2와 TT3으로 텍스트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번역서와 관련된 결텍스트 및 기타 문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해당 번역가가 번역가로서 상징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의 경위와 과정, 그 영향과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전체 번역본에 해당하는 결텍스트를 수집하였다. 결텍스트에는 각 번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역자후기, 추천사 등의 주변텍스트와 번역서 외부에 존재하는 바깥텍스트가 모두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을 활용하였고, 번역서의 제목과 번역가의 이름을 함께 검색하여 해당 서적이 언급된 언론 기사, 번역가의 인터뷰, 대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의 독자 서평을 모두 수집하였다. 또한, 번역가가 해당 서적을 소개하기 위해 출연한 인터넷 방송 2편의 오디오 파일을 확보하여 전사 후 자료로 사용하였다. 기타 문헌의 경우 재번역이 이루어지던 시기 주식시장과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언론 기사, 보고서, 논문 등을 포함한다.

3.2 분석 방법 및 절차

3.1의 재번역 사례를 통해 번역주체가 상징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세 가지이다. 첫째, 원문과 초판 번역(TT2), 재번역(TT3)의 병렬코퍼스를 구축한 다음 정성적 분석을 통해 재번역의 번역 전략을 고찰하였다. 둘째, 모든 번역본(TT1, TT2, TT3, TT4, TT5)

의 결텍스트 및 기타 문헌을 통해 재번역이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배경, 재번역 과정, 번역가의 상징자본을 탐색했다. 마지막으로 재번역가와의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보강을 거친 다음 결론을 도출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의 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4.1절에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4.2절에서는 결텍스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3장에서는 번역가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앞절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강 및 검증한다.

4.1 텍스트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 번역서의 판본 중 두 가지(TT2, TT3)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특정 항목보다 재번역가의 전반적인 번역 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문 및 각 판본의 첫 번째 장(chapter)을 표본으로 하는 병렬코퍼스를 구축하였다. AntConc(Anthony, 2023) 소프트웨어 기준 토큰 수는 ST 3,170토큰, TT2 2,777토큰, TT3 2,141토큰이며, 한글의 경우 형태소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다. 병렬코퍼스는 원문을 중심으로 마침표 단위로 구분하고 엑셀(Microsoft Excel) 소프트웨어로 번역을 정렬한 결과 총 148개 단위의 원문과 두 가지 번역문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의 번역 결과물 분석은 어디까지나 해당 번역가가 재번역을 통해 상징자본을 구축하는 과정을 조망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일 뿐, 체계적 양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번역가의 번역 품질을 검증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TT3와 TT2를 비교하여 TT3에서 재번역가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삭제, 추가, 변경 전략을 사용했는지, 문장 단위를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TT3에서는 TT2의 텍스트에 대한 변경(32건), 추가(4건), 삭제(10건)가 이루어졌다. 또한 TT2에서 한 문장으로 처리되었던 문장이 분할된 빈도는 33건이며, 반대로 문장을 병합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기술한다. 종합하면 TT3에서는 문장을 분할하고 TT2에 쓰인 전문용어의 변경, 원문에는 없으나 TT2에 추가되었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의 삭제 전략이 주로 이루어졌다.

표 2

TT3의 재번역 전략

구분	전략	판본 정보	빈도
문장 내 변경	변경 (32회)	전문용어 변경	18
		문화소 번역의 수정	5
		TT2의 오역 수정	3
		기타(어휘 변경, 문장구조 변경 등)	6
	삭제 (10회)	원문, TT2에 있는 내용 삭제	4
		원문에 없고 TT2에서 추가한 전문용어 설명 삭제	6
	추가 (4회)	TT2에서 누락되었던 내용 추가	2
원문에 없는 내용 추가		2	
문장 구분	문장 분할 (37회)	원문, TT2의 단일 문장을 분할	33
		TT2에서 병합했던 문장을 원문대로 복원	4
	문장 병합 (2회)	TT2에서 분할한 문장을 원문대로 복원	1
		TT2에서 분할했던 문장을 원문대로 복원	1

4.1.1 문장분할

초판 번역본에 비해 재번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구조가 단순해다는 것이다. 초판 번역에서 단일 문장이었으나 TT3에서 두 문장으로 분할하는 빈도가 37건이나 되었다. 이 중 원문에서는 두 문장이었으나 TT2에서 병합한 것을 원문 구조와 동일하게 복원한 것은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3건은 <예시 1>과 같이 원문에서도 단일 문장의 형태였던 것을 TT3에서 분할한 사례이다.

<예시 1>

ST: Only in hindsight can I report that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was down on January 19, 1944, the day I was born, and declined further

the week I was in the hospital.

TT2: 나중에 가서야 나는, 1944년 1월 19일 내가 태어난 날에는 다우 존스지수가 내려갔으며 내가 병원에 있던 그 주간 내내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TT3: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태어났던 1944년 1월 19일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내가 병원에 있던 주간에는 더 내려갔다.

문장 분할은 원문에 비해 문장 구조가 단순해지고 길이 또한 줄어들게 되어 가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번역 전략이다. 그러나 원문의 문장 구분을 번역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원문 충실성 측면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번역 전략이다.

4.1.2 전문용어의 수정

재번역에서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경향은 투자 관련 전문용어의 수정이었다. 초판 번역은 한국신용평가 평가팀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팀의 구성원이 어떠한 문화자본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신용평가는 펀드매니저가 속한 자산운용업과 전혀 무관한 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투자에 대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초판을 번역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번역가인 이진은 원저자와 동일한 직종인 펀드매니저 출신의 번역가이기에 보다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데, 텍스트 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재번역에서는 <예시 2>과 같이 업계 관행에 따라 전문용어를 음차하거나, 초판에서 일반 언어로 번역되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원문이 전문용어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시 3>의 “trendline”은 기술적 분석에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 동향을 표시한 직선이나 곡선을 뜻하며 통상 “추세선”으로 번역되지만 초판에서는 “특정 경향”으로 번역되어 원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또한 자산의 매도가 과도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가능성을 뜻하는 “overload”의 번역 역시 “과잉매도되고 있다”에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과매도”로 수정되었다. 이밖에 “balance sheets”는 “이재(理財)(TT2)”에서 “대차대조표”(TT3)로, “funds”가 “신탁”(TT2)에서 “펀드”(TT3)로, “big-baggers”는 “막강한 주식이윤”(TT2)에서

“대박종목”(TT3)으로, “major exchange”는 “주요 거래”(TT2)에서 “증권거래소”(TT3)로 변경되었다.

<예시 2>

ST: I also found it difficult to integrate the efficient-market hypothesis (that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is “known” and prices are always “rational”) with the random-walk hypothesis (that the ups and downs of the market are irrational and entirely unpredictable).

TT2: 나는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즉시 알려져서 완전히 주식가격에 반영된다는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market hypothesis)과, 장의 등락은 비합리적이며 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불규칙보행가설’(random-walk hypothesis)을 통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TT3: 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주식시장에는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주가는 항상 ‘합리적’이다)과 랜덤워크 가설(시장의 등락은 비합리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도 통합하기가 힘들었다.

<예시 3>

ST: ...a trendline has been broken, Republicans will win the election, stocks are “oversold,” etc.

TT2: ...특정 경향이 무너지고 있다든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든지, 주식이 과잉매도되고 있다든지 하는 따위들이다.

TT3: ...추세선이 깨졌다느니, 공화당이 선거에 이긴다느니, 주식이 ‘과매도’ 되었다느니 등이다.

상기 두 전략 이외에, 원문과 TT2에 존재하는 내용 중 TT3에서 삭제된 부분도 존재했다. <예시 4>의 문장에서 목표어인 한국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적 요소인 ‘Lions Club’이 생략되었다.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를 번역할 때에는 보상 전략을 통해 설명을 추가하거나 도착어에 존재하는 개념이나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시에 나타난 삭제 전략은 번역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예시 4>

ST: The stock fell to six cents, so one share could buy you six gumballs

from a Lions Club machine.

TT2: 이에 따라 그 주식은 6센트로 떨어져서 라이온스클럽 자판기에서 껌이나 여섯개 살 정도밖에 안되었다.

TT3: 주가는 6센트로 떨어져서 ○ 자판기에서 풍선껌 6개를 뽑을 푼돈 이 되었다.

또한 TT3는 TT2에 비해 텍스트의 분량이 2,777토큰에서 2,141토큰으로 무려 22.9% 줄어들었다. 병렬코퍼스 분석 결과 문장 단위의 번역이 누락된 부분은 없었으나, TT2에서 제공되었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TT3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T2가 발간되었던 1995년과 TT3가 발간되었던 2007년 사이 공모펀드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2.1항에서 다룬다.

텍스트 분석 결과 나타난 전문용어의 수정, 삭제와 단순화 전략은 재번역가가 보유한 지식과 업계 전문가로서의 경력, 즉 그가 내재화한 문화자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문헌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우선 곁텍스트 이외의 다양한 문헌을 통해 재번역이 출시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기술하고(4.2.1항) 분석대상 번역가 및 작품의 곁텍스트를 통해 번역가의 재번역 작업과정 및 전략에 대해 조사하였다(4.2.2항). 마지막으로 번역주체 이외의 기타 관련 주체가 생산한 곁텍스트를 통해 해당 번역가가 장에서 구축한 상징자본을 기술하였다(4.2.3항).

4.2.1 재번역 출간의 배경

본고의 연구대상 원전이 최초 출간된 미국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Peter Lynch가 운용하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공모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보유 규모가 1인당 GDP의 2.3배일 정도로 펀드 투자가 대중화되어 있는 국가이다(고광수, 2020, p. 917). 원저자 Peter Lynch는 수많은 펀드 중 하나에 불과했던 Magellan Fund를 최고 수익률 기록을 보유한 세계적 공모펀드로 격상시켰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1990년 돌연 46세의 나이로 은

퇴를 선언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Peter Lynch, 2024). 원전은 그가 투자계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은퇴하기 직전인 1989년에 출간되었고, 저자와 그 행보가 가진 화제성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여러 번 재번역과 재출간을 거쳤던 이유는 공모펀드 제도가 한국 시장에서 겪은 부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T1과 TT2가 출간되었던 1990년대 초중반은 공모펀드가 대중에게 점차 활성화되던 무렵이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 펀드 시장은 급격한 침체를 맞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급성장 시기를 거쳤다(고광수, 2020, p. 915). 이를 계기로 재번역이 이루어져 2000년대 후반 TT3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로 다시 한 번 축소된 공모펀드 시장은 2010년 다시 100조원을 돌파하여 성장기를 맞게 되고(고광수, 2020, p. 915) 이에 힘입어 2017년 TT4가 출시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로 촉발된 시장 위기 상황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개인 주식투자자 비중이 급증하는 소위 “동학개미” 열풍이 한국을 덮치며 경제경영서 판매가 급증했고, 2017년 출간되었던 TT4 역시 다시 경제경영서 판매 순위 기준 13위에 올랐다(김슬기, 2020). 이러한 출판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2021년에는 투자전문가 감수를 거친 재번역(TT5)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2 재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역할

연구대상 번역주체가 기술한 결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해당 번역가는 재번역 작품의 상업적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작의 우수성과 원저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투자 고전을 직접 발굴하여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재번역하는 번역가로서 자신의 평판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재번역판(TT3)이 출간된 2009년 이후에는 이전에 잘못 번역되었던 투자고전을 발굴하여 직접 출판사에 재번역을 제안한 경험을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러한 사례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경, 2011; 송창섭, 2012). 이러한 재번역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가 투자 고전을 선택하여 번역을 제안하는 번역가라는 평판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님은 그래서 이미 번역된 책들이라 해도 번역의 품질이 별로라고 판단되면 재번역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직접 출판사에 “이 책은 (재)번역합시다”하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런 번역가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출판사에서 출판할 만한 해외 원서들을 물색한 후 적당한 번역가들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참고로, 이건님이 직접 발굴해 출판사에 번역을 제안한 책들로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재번역)...등이 있습니다. (이혜경, 2011)

““오역된 투자 고전서 재번역 출간 보람 느낍니다.”...최근 이씨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재번역 분야다. 오역된 투자 고전서들을 재번역해 출간하는 데 그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송창섭, 2012)

특히 그는 재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 지식과 경험이라는 문화자본을 갖추지 않은 번역가들의 번역은 정확성과 가독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타 번역가와 자신을 차별화하는 가장 큰 특성인 투자 실무 경험과 지식이 투자서 번역가에 필요한 문화자본임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재번역이 초판의 부족함이나 불충분함을 개선하는 번역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 나온 투자(번역)서들의 경우, 문학이나 에세이 등을 맡았던 사람들이 번역한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투자 분야를 잘 모르는 이들이 번역한 책들은 (번역상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독자들이 저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습니다.”(이혜경, 2011)

또한 그는 재번역 개정판(TT4)이 출간된 2017년 직후에는 온라인 방송에 출연하여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의 원전인 『One up on Wall Street』의 우수성과 저자 Peter Lynch의 뛰어난 투자 업적에 대해 소개하고, 원작 및 번역서를 투자 분야의 필독서로 홍보하였다. 이는 원전과 원저자의 상징자본을 역서가 출간되는 목표문화로 이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초보자용으로 거의 완벽한 투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단 실력 있는 저자가 썼어요. 게다가 쉽고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이 책은 초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필독서라

고 봐야죠. (신과함께, 2018)

이건은 이렇게 재번역 원작과 원저자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번역을 통해 타 번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번역장에서 자신의 평판을 쌓고 입지를 확보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4.2.3 번역가의 상징자본

본 항에서는 재번역 생산에 관련되는 여러 주체들이 기술한 결텍스트에서 해당 번역가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투자전문가의 추천서, 독자 서평, 언론 기사 등 다양한 결텍스트에서 연구대상 번역가가 투자 분야의 고전으로 꼽히는 양서를 독자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번역하는 번역가라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우선 연구대상 재번역서의 최신판(TT5)에는 투자전문가의 추천서문 두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번역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추천서문 1 (Lynch & Rothchild, 2021: 8)

피터 린치의 존재가 한국에 알려진 지 26년이 흘렀다. 그 가운데 큰 전환점은 이진 역자가 새롭게 번역한 개정판의 출간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나오기 힘든 명저를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진 역자는 용어와 표현을 다시 고쳐 또 한번의 개정판을 냈다. 완벽한 번역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한국에 이런 간간한 번역가가 있다는 건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아닐까 싶다.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추천서문 2 (Lynch & Rothchild, 2021: 13)

투자 전문 번역가이신 이진 선생님의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다듬어져 새롭게 출간된 이 책은 투자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방대한 투자 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고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진, 이연투자자문 대표)

또한, 재번역작에 대한 온라인 독자서평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구사하는 번역이라는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독자서평이나 전문가

의 추천사 등, 번역서 내부 및 외부에 위치한 결텍스트에서 번역가의 이름이 가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번역가가 어느 정도 번역가로서의 입지와 평판을 확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번역가가 해당 장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외부적인 인정을 받고 번역가로서의 지위를 공공히 하고 있다는 것, 즉 상징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서평 (Yes24, <https://sarak.yes24.com/review/14051255>)

특히 번역은 무한의 칭찬을 하고싶다.[sic]이건 작가의 번역은 원작자보다도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 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sic]쉽게 이해하도록 의역이 다소 들어간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4.3 면접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번역가와의 일대일 면접조사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1:1 면접조사는 2022년 1월 28일 진행되었고, 당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줌(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교내 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제번호 2021-0363)을 득하고 이에 따라 면접조사에 대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고,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득하였다. 본 면접조사는 해당 번역가가 번역 실천을 영위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현재 실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구조 및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면접은 사전에 제공한 질문 개요를 기반으로 하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이 제기되는 반구조화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접조사 질문 개요의 전문은 임진(2023, p. 350-351)에 수록되어 있다.

본 면접조사는 번역 실천을 조망하기 위한 자료인 텍스트 및 결텍스트를 보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우선 결텍스트 자료를 통하여 해당 번역가에 대해 알려진 기본적인 이력, 번역가가 된 동기, 번역가로서의 직업 궤적을 조사한 후에 진행되었으며 면접을 통해 결텍스트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본 번역가의 자본 추구 전략과 그 배경 및 경위를 검증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4.3.1 텍스트 개입 전략

앞서 4.1절의 분석 결과 나타났던 연구대상 번역가의 단순화, 전문용어 사용의 개입 전략은 투자 전문 서적에 대해 번역가가 견지하는 번역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독성을 중시하면서도 원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문 텍스트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목표어 지향적 번역이 이상적이라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었다.

저는 문단 단위로 번역을 하는데...문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하나를 두 개나 셋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셋을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그리고 표현하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필요한 거는 삽입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다만 그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흐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면접조사, 47:23)¹⁾

이러한 번역관을 견지하게 된 원인으로, 전직 금융업 종사자로서 바라본 원전의 생산 환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분야 서적의 특성 상 투자 실무에서 눈에 띄는 업적을 낸 저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문 작가가 아니기에 원전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 투자 이런 쪽은 저자들이 글 쓰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실무 경험은 아주 탁월하고 그쪽에서 좋은 실적도 많이 낸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저자의 글을 원문에 너무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외계 언어가 되는 건 당연해요...(면접조사, 33:29)

원전이 완벽하지 않기에, 자신이 가진 투자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묘사하는 실무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한 다음 목표어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번역가의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터뷰 내용

1) 면접조사는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화한 후 전사하였다. 면접조사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 해당 언급이 이루어진 시간을 “분:초”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이혜경, 2011)과도 일치하는 진술이다.

4.3.2 사회자본 축적 및 동원 전략

연구대상 번역가는 투자서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 중 이미 번역이 되어 있더라도 번역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적을 번역 출간한 출판사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재번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내고 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 보면, 거의 테러에 가까운 품질. 이런 책들이 꽤 있었어요. (중략) 출판사에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할 생각 없냐, 내가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출판사 담당 편집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책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 그 깜짝 놀란, 그 반응을 보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면접조사, 60:08)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증권분석 제6판』(Graham & Dodd, 2010) 등 다른 투자 고전의 재번역도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번역을 활발히 제안하던 시기 그는 번역가로 입지를 굳히기 전이었기에 출판사와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여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출판사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번역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제안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이 중 소수가 번역되어 출간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좋은 책을 번역하는 번역가라는 평판이 구축되었다. 이에 힘입어 결국 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출판사를 찾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들 출판사와 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좀 저명한 저자, 믿을 만한 실력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제 나름대로는 정성껏 선정을 하고 또 공을 들여서 번역을 하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평판이 좀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조사, 72:01)

또한 그는 출판사에 번역을 제안하는 경우 자신이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사회자본을 십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에 관련된 업무 중에 제가 상당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다. 책 기획 책 선정 그리고 번역, 그 다음에 추천사, 감수자, 프로모션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출판사가 좀 놀라더라고요. (면접조사, 70:05)

번역서의 상업적 성공을 피하는 출판사는 책을 출간할 때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사를 수록하거나 이들을 각종 홍보에 활용할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기에, 번역서의 성격에 적합한 전문가 풀을 번역가가 제안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 구축 및 활용 방식은 4.2.3항에서 제시한 재번역 3판(TT5)의 추천사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이 높게 나타났던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해당 추천사 작성자들은 모두 번역가 이견과 다른 작품을 통해서 감수자, 추천사 또는 기타 해설 자료 작성자 등으로 수차례 협업한 경험이 있었다.

종합하면, 번역가 이견은 자신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출판사에 재번역 및 재번역 홍보에 필요한 전문가를 함께 섭외하는 방식을 직접 제안하고, 투자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원문 구조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가독성과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른 번역가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를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상화된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번역가로서의 명성을 구축하였다.

5. 결론

본고는 한 번역가가 재번역을 통해 번역가로서 자신이 가진 차별화된 자본을 최대한 부각하며 번역장에서 상징자본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번역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텍스트와 문헌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거쳐 본고는 다음 세 가지의 상징자본 추구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번역가 이견은 자신의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전의 상징자본을 목표문화로 이전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는 출판문화에서 이미 성

공을 거둔 저자나 원작에 대한 재번역을 적극적으로 출판사에 제안했으며, 제안 시 번역서 출간 과정에서 추천사나 해설 등의 곁 텍스트 작성, 감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계 전문가를 소개하고 섭외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타 번역가와와는 차별화된 번역 실천을 도모했다. 모든 출판사가 이러한 방식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러 시도 끝에 이러한 방식을 수용하는 출판사들을 찾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흔히 갑-을 관계로 묘사되는 출판사와 번역가의 기존 협업관계가 장 내 주체의 실천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는 자신이 내재한 문화자본과 전직 투자전문가로서의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원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초판 번역에 비해 재번역은 빈번한 문장 분할을 통해 단순한 문장구조와 짧은 길이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삭제 전략도 일부 발견되었다. 그는 투자전문가 출신이 대부분인 투자서 저자들은 전문 저자가 아니어서 글 자체가 정제되어 있지 않기에 글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이 투자전문가로서 원문에 개입하여 이를 독자친화적인 번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번역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과감한 원문개입은 통상 번역가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이 건 번역가가 투자 업계를 두루 경험하며 축적한 주제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라는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는 자신의 사회자본을 번역서 홍보에 활용하고 문화자본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원문 개입을 펼쳤으며 투자 고전 재번역의 동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는 각종 강연, 온라인 매체 출연,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타 번역가와 차별화된 자신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번역실천에 대해 밝혔다. 이로 인해 그는 “투자 고전을 선점하여 쉽게 번역하는 번역가”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의 출판장과 투자장이 연구대상 재번역서가 출간되기 용이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공모펀드 제도의 정착과 성장에 힘입어 주식 투자 관련 투자서의 판매가 급증하고, 이 분야의 서적 출간이 붐을 이루던 시기에 재번역이 개정,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재번역 자체가 사회적 행위이며, 이를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텍스트, 문헌 분석, 면접조사의 경우 모든 질적 연구에 수반되는 연구자의 주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본고의 텍스트 분석은 한정된 표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질적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번역 과정에서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삼각검증을 통해 번역가의 텍스트 분석, 문헌조사, 면접조사를 다각적으로 동원하여 분석 결과를 상호검증함으로써 질적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회학적 연구가 각광을 받으면서 번역가의 기술이나 결 텍스트가 연구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특정 양상이 나타난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번역 실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재번역 생산 과정에서 번역가의 주체성을 노정함으로써 번역가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번역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번역가로서의 입지와 명성을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해 재번역이 생산되는 장의 변화를 도모하는 능동적 주체성을 가진 행위자이다. 인공지능과 기계번역의 도래로 그렇지 않아도 종종 부차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인간 번역가의 위상과 지위가 전례없는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는 인간 번역가의 능동적 주체성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Lynch, P., & Rothchild, J. (1989). *One up on Wall Street: How to use what you already know to make money in the market*. Simon and Schuster.

Lynch, P., & Rothchild, J. (2000). *One up on Wall Street: How to use what*

- you already know to make money in the market.* Simon and Schuster.
- Lynch, P., & Rothchild, J. (1991).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한국신용평가 출판사업부 역. 한국신용평가.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Lynch, P., & Rothchild, J. (1995).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한국신용평가 출판사업부 역. 국일증권연구소.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Lynch, P., & Rothchild, J. (2009).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이건 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Lynch, P., & Rothchild, J. (2017).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이건 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Lynch, P., & Rothchild, J. (2021).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이건 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2차 자료>

- 고광수. (2020). 주식형 공모 펀드: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학회지, 49(6), 913-941.
- 김세미. (2022). 강도 조절 측면의 평가어로 살펴본 영상 텍스트의 재번역 분석. 통역과 번역, 24(1), 1-26.
- 김순미. (2014).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39(4), 1-23.
- 김솔기. (2020. 4. 6). '동학개미운동' 열풍에 주식책 잘 팔린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9284386>
- 김자경. (2022). 한국소설의 재번역에 나타난 화법 변화와 번역가의 선택 — 『움직이는 성』 재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2), 97-126.
- 박미정. (2016). 하루키즘과 능동적 재번역. 통번역학연구, 20(4), 83?115.
- 송창섭. (2012. 3. 5). 이건 주식투자서 전문 번역가. 이코노미 조선. <https://bit.ly/3yDp9uK>
- 유한내. (2017). 재번역을 재고하다: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

- 로. 번역학연구, 18(1), 95-116.
- 이상빈. (2018). 재번역 및 자가교정(self-revision) 분석을 통한 한국문학번역 방향 고찰하기. 번역학연구, 19(4), 121-147.
- 이상빈. (2020). 마살 필의 <홍길동전> 경판본 번역 분석. 통번역학연구, 24(4), 97-124.
- 이혜경. (2011. 4. 15). [인터뷰] 투자 전문 번역가 이진: 좋은 투자서란? 아이 투자. <https://bit.ly/3M3Lg0n>
- 임진. (2023). 경제·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원석, 이화연, 김슬기, 이상빈. (2022). 한국단편소설 번역의 자기교정 사례 분석. 통번역학연구, 26(4), 139-160.
- 최은경, 조성은. (2022). 재번역 양상 및 요인 연구 —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나타난 문화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1), 331-352.
- Anthony, L. (2023). AntConc 4.2.4 [Software]. <https://www.laurenceanthony.net/software.html>
- Berman, A. (2009). *Towards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Massardier-Kenny, F. Trans.). Kent State University.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Nice, R.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P. Bourdieu & J. G.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15-29). Greenwood.
- Bourdieu, P., & Wacquant, L. J. D.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rlston, D. (2012). *Hegel's phenomenology in tran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latorial hex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nchester.
- Charlston, D. (2018). *Hegel's phenomenology: A comparative analysis of*

- translatorial hexis. In K. Malmkjaer, A. Şerban & F. Louwagie (Eds.), *Key cultural texts in translation* (pp. 181-190). John Benjamins.
- Graham, B., & Dodd, D. (2010). 증권분석 제3판. 이권 역. 리딩리더. (Original work published 1951)
- Gürçağlar, T. (2019). Retranslation. In M. Baker & G.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pp. 484-489). Routledge.
- Kim, K. H. (2018). Retranslation as a socially engaged activity: The case of The rape of Nanking. *Perspectives*, 26(3), 391-404.
- Koskinen, K., & Paloposki, O. (2010). Retranslation.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pp. 294-298). John Benjamins.
- Massardier-Kenney, F. (2015). Toward a rethinking of retranslation. *Translation Review*, 92(1), 73-85.
- Peter Lynch. (2024, May 30),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eter_Lynch
- Song, Z. (2012). The art of war in retranslating Sun Tzu.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76-190.
- Tzu, S. (1963). *The art of war* (Griffith, S.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 Tzu, S. (2003). *The art of war plus the ancient Chinese revealed* (Gary Gagliardi Trans.). Clearbridge.

A translator's pursuit of symbolic capital through retranslation

Jin Yim (jy2812@gmail.com)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 retranslated version of *One Up on Wall Street*, a globally recognized essay co-authored by legendary fund manager Peter Lynch and financial columnist John Rothchild. Celebrating the 35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the US, this article explores how Kun Lee, a business book translator and former fund manager, retranslated the work in the South Korean context and strategically used it to gain symbolic capital in the field. To better examine his multi-faceted interactions with other agents and social structures, the study adopted Pierre Bourdieu's conceptual frameworks. Leveraging his financial expertise, the translator proposed the retranslation to the publisher and adopted simplification as his primary translation strategy. He also mobilized social capital by referring industry experts to the publisher to write endorsements for the book. More importantly, his strategic orientations involved creating paratexts that helped to reinforce his image as a 'translator of investment classics.' His agency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reception of his translations within South Korea's investment circles and among the general public. By adopting a sociological approach to a non-literary work, this article aims to broaden the horiz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retranslation.

Keywords: Retranslation; translator study; sociology of translation; symbolic capital; non-literary translation

키워드: 재번역, 번역가 연구, 번역사회학, 상징자본, 실용서 번역

임진(<https://orcid.org/0009-0005-4335-3329>)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jy2812@gmail.com](mailto: jy2812@gmail.com)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